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나타난 백인 유권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

이 소 영 (대구대학교/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soyoung.sylee@gmail.com)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백인 유권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가 유권자들의 태도와 투표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내집단과 외집단의 온도 점수 차이를 이용하여 측정한 자민족중심주의 성향 지수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강한 백인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과 이슈에 대한 태도, 그리고 후보자 선택은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약한 백인 유권자들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은 이념적으로 보수적이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며 정치적 이슈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에 있어서도 자민족중심주의는 전통적인 투표 선택 요인인 학력, 정당일체감, 이슈에 대한 태도, 경제 상황 평가 등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히스패닉을 비롯한 소수집단 유권자의 수와 영향력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본 연구의 결과는 어떻게 자민족중심주의를 극복할 것인가가 향후 미국 정치의 주요 아젠다가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주제어 : 자민족중심주의, 2016년 미국 대선, 백인 유권자, 투표 선택, 트럼프

* 이 논문(저서)은 2016년도 정부재원(교육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6S1A3A2925033).

I. 서론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는 백인 유권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프라이머리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6년 5월, *Us Against Them: Ethnocentric Foundations of American Opinion*(2010)의 저자 중 한 명인 신디 캄(Cindy D. Kam) 교수는 “자민족중심주의가 트럼프를 공화당 후보로 만들 것이다”라고 예상하였다.¹⁾ 실제로 프라이머리 기간 중에 행해진 전미선거연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조사 결과는 자민족중심주의가 트럼프 지지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흑인이나 라티노, 동성애자, 페미니스트, 트랜스젠더 집단에 대해 가장 낮은 호감도를 가지는 집단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백인 유권자들로 나타났으며, 공화당을 지지하는 백인 유권자들 중에서도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에게서 자민족중심주의적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들에게 소수 집단에 대해 0부터 100까지 호감도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여 그 평균 점수로 자민족중심주의적 성향을 측정한 이 연구에서 공화당 지지 백인들은 민주당 지지 백인들에 비해 자민족중심주의적 성향이 20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자민족중심주의적 성향이 강한 집단으로 분류된 유권자들은 그 성향이 약한 집단으로 분류된 유권자들에 비해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가 15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alkan 2016).

킨더와 캄(Kinder and Kam 2009)의 정의에 따르면, 자민족중심주의는 인간 세상을 인그룹(in-group)과 아웃그룹(out-group)으로 구분하려는 경향을 일컫는다. 즉 ‘우리’ 대 ‘그들’로 구분짓는 것이다.²⁾ 이 그룹들은 국적, 인종, 종교, 성적 성향 등 다양한 범주에 의해 구분된다. 특히 이러한 구분에 바탕하여 자신의 집단이 타집단보다 우수하다는 생각이 크게 나타날 때 자민족중심주의적 경향이 극대화된다(Introduction to Culture: Ethnocentrism 2017).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백인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집단의 구분이 강하게 나타났다. 무슬림의 위협에 대비한 미국민 보호 정책이나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1) 캄교수는 그러나 본선에서는 트럼프가 자민족중심주의적 레토릭 때문에 패배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2) 이러한 개념 정의에 바탕하자면, ethnocentrism은 사실상 ‘자민족중심주의’보다는 ‘집단중심주의(group-centrism)’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ethnocentrism을 자민족중심주의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자민족중심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그 의미는 집단중심주의에 더 가깝다는 것을 밝힌다.

벽을 세우는 일 등 다른 어떤 후보도 제시하지 않은 반이민주의적, 인종주의적 담론을 통하여 트럼프는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하였다. 프라이머리 선거 기간 동안 자민족중심주의적 정책을 강조하였던 트럼프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본선 돌입 후에는 보다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중간적인 정책으로 입장을 선회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트럼프는 캠페인 기간 내내 극단적이고 강한 자민족중심주의적 경향을 고수하였다.

타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스테레오 타입의 형태로 백인들의 타인종 및 타민족에 대한 차별 또는 자민족중심주의적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였지만 표면적으로는 인종주의적 정치행태가 완화된 듯이 보였던 미국 정치에서 백인 유권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적 경향이 다시 수면 위로 선명하게 나타난 것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배출한 2008년 대선 때였다(Kam and Kinder 2012; Ogorzalek 2011; Weisberg and Devine 2009). 다수의 유권자들이 흑인 후보자에게 투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대선은 최근의 미국 대선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인종주의적 태도가 후보자 선택에 미친 영향이 큰 대선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집단중심적이고 인종주의적인 대선이었다고 평가받는 1968년 대선을 제외하고는 2008년 대선과 1980년 대선에서 인종주의적 또는 집단중심적 경향이 가장 강하게 표출되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Ogorzalek 2011).

백인들의 자민족중심주의적 경향이 가장 강했던 이 세 차례(1968년, 1980년, 2008년)의 대선은 백인 유권자들의 흑인에 대한 혐오와 반감이 투표 행위에 표출된 선거였다. 그러나 2016년 대선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백인 유권자들의 반감의 대상이 흑인에 국한되지 않고 히스패닉과 무슬림을 포함하는 미국 내 소수인종 전체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미국 정치에서 자민족중심주의가 보다 심화되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의 자민족중심주의적 경향은 다른 다민족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인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Ogorzalek 2011). 그러나 미국에서 이러한 자민족중심주의적 경향이 모든 정치적 행위에서 뚜렷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환경의 변화나 엘리트들의 의도적 동원에 의해 자민족중심주의는 정치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2016년에는 후보자 캠프가 자민족중심주의적 캠페인을 전략적으로 채택하고 또 미디어가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자민족중심주의의 영향이 가시화되었다.

본 연구는 이렇게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가시화된 자민족중심주의의 경향과 선거에의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논의를 위해 본 연구는 2016년 대선을 전후하여 유권자 조사를 진행한 전미선거연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의

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6년 미국 백인 유권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적 경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경향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경향과 이슈에 대한 태도, 그리고 후보자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Ⅱ. 기존 문헌 연구

1. 자민족중심주의와 유권자 행태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자민족중심주의는 “다른 인종집단에 비해 특정 인종집단을 더 좋아하고 애착을 가지는 경향(Yinger 1985),” 즉 “내집단에 강한 일체감을 느끼면서 호의적 태도를 가지는 반면에, 외집단에 대해서는 적대심을 가지는 경향(Taylor 1961)”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인종집단이나 문화가 다른 인종집단이나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문화적 가치나 표준에 의해 다른 집단이나 문화를 평가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캄과 킨더(kam and Kinder 2012)는 이를 “세계를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우리’와 ‘그들’로 구분하는 뿌리 깊은 심리적 성향”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섬너(Sumner 1906)가 말했듯이, 자신의 집단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관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Kam and Kinder 2012에서 재인용).

미국에서 자민족중심주의는 정통 미국인을 ‘북유럽계 조상을 가진 백인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기독교인’으로 특징지으면서 미국 국가 정체성의 근원을 이루어 왔다(정회옥 2014). 이러한 정체성에 근거하여 흑인과 같은 소수 인종집단은 법적으로 시민적 권리를 확보한 후에도 여전히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형성 등으로부터 소외되고 차별받는 일이 지속되어 왔다. 1964년에 민권법이 발효되었지만 50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흑인들에 대한 백인들의 적대감과 차별은 뚜렷하게 남아 있다. 이를 통해 자민족중심주의가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감정이 아닌 하나의 집단이 다른 집단들에 대해 가지는 깊이 뿌리박힌 정서적, 심리적 성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 자민족중심주의는 주로 인종주의로 표출되어 왔다. 2008년 대선에서도 미국 백인들의 자민족중심주의는 인종주의로 나타났고 이 인종주의가 다시 유권자들을 오바마에 대한 반대로 이끌었다. 그러나 자민족중심주의는 인종주의보다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이웃 사이터들에 대한 총체적인 반응을 의미하며, 자민족중심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이 반응을 타집단에 대한 편견으로 표출하는 것이 보다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합리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에 자민족중심주의는 타집단에 대한 편견과 배제로 표출된다(Kam and

Kinder 2012).

미국 사회의 자민족중심주의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백인우월주의에 기반한) 자민족중심주의가 유권자들의 정책에 대한 태도 또는 정치적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해 왔다. 미국의 많은 정책들이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될 뿐 아니라 이 정책들에 대한 비판이나 찬성 여론 또한 집단성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Wier et al. 1988). 흑인들에 대한 공감이나 연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차별보상정책(affirmative action)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고(Kinder and Sanders 1990),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의 확대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Kluegel and Smith 1986).

보다 최근에는 이민법 개정이 미국 사회의 중심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자민족중심주의가 이민 정책에 대한 대중의 여론과 정치적 태도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졌다. 관련 연구들은 특히 미국인들이 이민자 및 다른 인종집단에 대해 가지는 배타성 또는 반이민 정서는 단순히 물질적·경제적 이익에 기반한 결과라기보다는 백인들의 자민족중심주의 또는 집단중심적 가치라는 보다 근원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의 영향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Citrin et al. 1997; Lee and Ottai 2002). 전미선거연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국 사회에서 자민족중심주의의 역할을 분석한 킨더와 캄(Kinder and Kam 2009)은 1990년대 초 백인들의 제한적 이민법에 대한 지지가 자민족중심주의와 관련되어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있다. 발렌티노 등(Valentino et al. 2013)의 연구에 의하면, 2008년 대선 유권자들의 이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려보다는 자민족중심주의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국가 경제에 대한 평가나 전망은 이민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며,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은 개인의 재정상황에 대한 전망뿐이었다. 연구의 결과는 유권자 개인의 재정상황에 대한 전망이 최저에서 최고로 변화할 때 이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약 22% 가량 감소하는 반면, 자민족중심주의는 최저치에서 최고치로 변할 때 이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59%나 상승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번스와 김펠(Burns and Gimpel 2000)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영향이 감소하고 대신에 라티노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이나 고정관념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발렌티노 등(2013)의 연구 결과는 실제로 미국의 백인들이 ‘이민’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할 때 다른 인종 또는 민족 집단보다는 라티노 집단을 떠올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티노를 중심으로 한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은 백인들의 불안감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안감이 이민자 유입 및 친이민정

책에 대한 반감을 유도한다(Brader et al. 2008). 예를 들어, 이러한 불안감은 1994년 캘리포니아에서 주민발의안 187호(Proposition 187)를 통과시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제안 187호는 시민권 부여 전에 주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일명 ‘주 구제 법(Save Our State)’이라고 불리는 이 제안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비응급 의료 서비스나 공교육 등 주 차원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제안으로서 캘리포니아 투표자 중 약 59%가 찬성하였다.

자신이 속한 집단을 중심으로 타집단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 정서에 기반한 자민족중심주의적 의견이나 태도는 시민들이 어느 특정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고 그 소속감과 정부의 정책을 연관시킬 때 형성된다. 그런데 모든 시민들이 이러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몇몇 연구들은 이러한 집단 소속감과 정책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 담론 과정에서 진행되는 이슈에 대한 프레이밍과 프레이밍 과정을 통해 보다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Nelson and Kinder 1996; Valentino et al. 2013). 이는 자민족중심주의가 미국 (백인) 유권자들에게 깊게 내재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이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태도에 뚜렷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슈에 대한 엘리트와 언론의 유권자 동원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렌티노 등(Valentino et al. 2013)에 의하면, 미국 언론이 라티노 이민자 또는 히스패닉에 대해 크게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캘리포니아 제안 187호가 이슈화 되었던 1994년부터였다. 이후 라티노 이민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라티노에 대한 뉴스미디어의 보도도 계속 증가해 왔다. 특히, 언론의 라티노 언급 빈도가 최고조를 이룬 해는 2006년이었는데, 이는 2005년에 하원을 통과하였지만 상원을 통과하는 데는 실패한 ‘국경보호, 반테러, 불법이민 통제법(The Border Protection, Anti-terrorism, and Illegal Immigration Control Act)’에 대한 찬반 시위가 2006년 내내 계속되고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0년 이후 이민 이슈에 대한 논쟁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언론의 관심도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난다. 발렌티노 등의 연구는 백인들의 히스패닉에 대한 비호감도가 이러한 언론의 관심 및 보도 빈도와 매우 유사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 의하면, 2004년에 히스패닉에 대한 비호감도가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9.11의 여진이 남아 있었던 2004년 대선 과정에서 라티노 이민자 문제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주로 무슬림과 중동 지역 이민자들에 대한 우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넬슨과 킨더(Nelson and Kinder 1996)의 연구 또한 이슈에 대한 집단 중심적 프레이밍이 집단 중심의 여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빈곤구제 프로그램, AIDS 투병 및 예방 예산, 흑인 우선 고용 및 승진, 그리고 차별보상정책에

대한 태도를 다른 두 개의 다른 프레임 안에서 측정한 실험 결과, 미디어가 그 정책의 수혜자를 강조할 때, 집단중심주의가 증가하고, 반대로 정책 수혜자에 대한 관심이 아닌 다른 측면을 강조할 때 집단중심적 태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2016년 대선과 자민족중심주의적 경향

2016년 미국 대선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집단중심적 이슈가 캠페인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였고, 특히 반이민, 반인종적 입장을 강조한 트럼프가 프레임 전쟁에서 승자로 부상했다. 언론들은 트럼프가 이전의 대선 후보자들은 드러내어 주장하지 않았던 반이민적, 인종주의적 레토릭을 사용하자 이를 앞다투어 보도하였다. 전통적으로 이민 이슈와 무슬림 이슈는 대선 기간 미국의 언론이 부정적 시각으로 보도하는 이슈들이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쇼렌스타인 센터(Shorenstein Center)의 분석(2016/12/7)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뉴스미디어가 보도한 이민 관련 뉴스의 84%, 무슬림 관련 뉴스의 87%가 부정적 관점의 보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https://shorensteincenter.org/news-coverage-2016-general-election/>).

캠페인 막판에 트럼프는 언론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비난하였지만, 캠페인 전 기간을 통해 보면, 마지막 캠페인 기간을 제외하고는 언론의 보도가 트럼프의 레토릭이나 입장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전 정치인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던 트럼프의 독특한 캐릭터와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형태를 보임으로써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 반이민적, 인종주의적 프레임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프라이머리 시기에는 미디어의 관심은 온통 트럼프에게 쏠려 있었으며, 그 논조도 초기에는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훨씬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박영환 2017). BallotPedia의 한 칼럼(Coyle 2015)은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언론들은 트럼프와 그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트럼프의 지명도와 인기의 상승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BallotPedia가 2015년 후반기에 5개 주요 언론사들의 뉴스 기사를 분석한 결과, 183개의 정책 관련 이슈를 다룬 기사 중 89개 기사가 이민 정책 내지 트럼프의 이민 및 멕시코 국경 정책이었으며, 무슬림 관련 기사는 두 번째로 많이 다루어진 기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칼럼에서 인용한 보스턴대학의 버코비츠(Tobe Berkovitz) 교수는 “미디어가 트럼프를 현실에 불만족한 많은 사람들의 영웅이라는 생각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한다.

트럼프의 반이민, 인종주의적 입장과 이를 앞다투어 보도한 뉴스미디어의 행태는 백인 유권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적 성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 트럼프 캠페인은 폭력과

이민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그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적 접근(조기숙 2017)을 통해 백인들의 히스패닉, 무슬림, 흑인에 대한 적대감과 반감을 극대화하였고, 이는 다시 자민족중심주의적 성향이 강한 백인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6년 대선 출구조사에 의하면, 특히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저학력 백인 유권자들의 트럼프에 대한 지지(66%)는 클린턴에 대한 지지(29%)에 크게 앞섰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이소영 2016) 저학력 유권자들은 트럼프 캠페인이 초점을 맞추었던 주요 전략적 대상이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데이터를 사용한 한 연구(Ogorzalek 2011)에 의하면,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선거에서 자민족중심주의적 성향이 보다 강하게 표출되는 국가로 조사되었다. 기존 연구들은 특히 2008년 미국 대선을 백인들의 자민족중심주의적 경향과 흑인에 대한 반감이 투표결과에 뚜렷하게 반영된 선거로 평가하고 있다(Kam and Kinder 2012; Ogorzalek 2011; Weisberg and Devine 2010). 캄과 킨더(2012)에 의하면, 2008년에 미국 유권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를 자극한 요인은 오바마의 인종과 오바마가 무슬림이라는 믿음이었다. 경험적 분석 결과, 자민족중심주의와 흑인에 대한 인종적 반감, 그리고 반무슬림 정서는 2008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매케인(McCain)에 대한 지지와 민주당 후보인 오바마에 대한 반대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민법 개정이나 불법이민자 강제추방 제한 이슈 등 이민 관련 이슈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흑백 갈등이 보다 심화되었던 2012년 선거에서는 백인 유권자들의 공화당 후보(Romney)에 대한 지지와 오바마에 대한 지지 간의 차(20%p)가 2008년의 차이(12%p)보다 훨씬 커졌다(2012 출구조사 참조). 2016년 대선에서도 트럼프에 대한 백인 유권자들의 지지는 클린턴에 대한 지지보다 20%p 높게 나타나 2012년과 큰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히스패닉과 무슬림 이민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트럼프의 포퓰리즘적 전략과 이민·인종 관련 이슈들 및 트럼프의 캐릭터에 대한 미디어의 집중적 기사화는 2016년 대선에서 자민족중심주의의 영향력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2016년 유권자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러한 예측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소주제들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실시하고 논의를 전개한다.

- ① 2016년 미국 백인 유권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 성향 분포
- ② 자민족중심주의 성향과 정치적 태도와의 관계
- ③ 자민족중심주의가 후보자 선택에 미친 영향

Ⅲ. 연구 방법

1. 데이터와 자민족중심주의 측정

본 연구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백인 유권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가 그들의 후보자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6년 전미선거연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ANES))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전통적으로 미시건 대학에서 주관해 오던 ANES 데이터 수집에 이번 대선에서는 스탠포드 대학도 함께 참여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버전은 2017년 5월 2일에 발표된 자료이다. ANES는 1948년 이래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는 선거조사연구로서, 2016년의 경우 전통적인 페이스 투 페이스 면접에 1,181명, 인터넷 조사에 3,090명이 응답하여 표본 크기는 총 4,271명이다. 대선 전에 일차적으로 조사를 한 후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선거 후에 다시 조사하는 패넬조사이며, 2016년 사전조사의 응답률은 페이스 투 페이스 조사가 50%, 인터넷 조사가 44%이고, 사후조사에서의 패넬 유지율은 각각 90%와 84%이다(ANES 2016 Time Series Study User Guide and Codebook 참조).

본 연구는 미국 백인 유권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집단 온도지수(group thermometer score)를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킨더와 캄(2009)이 활용한 방법으로 서 이후 몇몇 연구들이 사용해 왔다. ANES는 응답자들에게 다양한 집단에 대해 0부터 100까지 자신이 느끼는 온도를 점수로 부여하게 하고 있다. 0은 가장 멀거나 차가운 느낌을, 100은 가장 가깝거나 따뜻한 느낌을 의미한다. 자민족중심주의는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성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온도점수는 자민족중심주의의 적절한 측정 방법으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무슬림, 페미니스트,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7개 집단에 대해 백인들이 느끼는 거리감을 측정하였다. 이어서 백인 유권자들이 백인(내집단)에게 부여한 온도점수에서 7개 외집단에 대해 부여한 온도점수의 평균을 뺀 수치를 자민족중심주의 변수로 사용하였다. 즉,

- * 백인 유권자의 자민족중심주의 (내집단 온도점수 - 외집단 온도점수)
- = 백인이 백인(내집단)에게 부여한 백인 온도점수
- 백인이 부여한 (흑인 온도점수 + 히스패닉 온도점수 + 아시안 온도점수 + 무슬림 온도점수 + 페미니스트 온도점수 + 동성애자 온도점수 + 트랜스젠더 온도점수) / 7

2. 분석 방법과 변인 측정

본 연구는 백인 유권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가 2016년 미국 대선의 투표 선택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빗 회귀분석을 이용한다. 이에 앞서 본 연구는 2016년 미국에서 백인들의 자민족중심주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또 다양한 정치적 정향에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 또는 어떠한 정치적 태도로 표출되는지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활용하는 변수는 다음과 같은 7점 척도 변수들이다.

- * 정치적 이념: 1=강한 자유주의, 7=강한 보수주의
- * 정당일체감: 1=강한 민주당 일체감, 7=강한 공화당 일체감
- * 공공서비스 정부지출: 1=서비스 지출 증대, 7=서비스 지출 감소
- * 방위비 지출: 1=방위비 지출 감소, 7=방위비 지출 증대
- * 의료보험: 1=정부주도 의료보험, 7=민간주도 의료보험
- * 흑인 규제: 1=정부가 흑인을 도와야 한다, 7=흑인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 * 환경과 일자리: 1=환경보호를 위한 기업 규제, 7=일자리를 위한 규제 완화
- * 멕시코 국경에 벽 건설: 1=매우 반대, 7=매우 찬성

각 이슈에 대한 입장의 일관된 방향을 위해 자유주의적 입장을 1로, 보수주의적 입장을 7로 하여 이와 방향이 반대되는 질문 문항들(공공서비스 정부지출 및 멕시코 국경 벽 건설)은 역으로 재코딩하였다. 본 연구는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의 정도에 따라 이 8개 변수의 각각의 평균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함으로써 미국 백인 유권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미국민의 정치적 정향 및 주요 이슈에 대한 태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현재 연속변수로 되어 있는 자민족중심주의를 표본 분포의 1/3과 2/3 되는 지점에서 분할하여 약-중-강의 세 범주로 만든 후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약한 경우와 강한 경우의 정치적 정향과 태도를 비교한다.

이어서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프로빗분석을 실시한다. 종속변수는 트럼프 선택을 1, 클린턴 선택을 0으로 하는 이원변수이다. 분석을 위한 통제변수에는 위에서 언급한 ‘정치적 이념’, ‘정당일체감’, 그리고 6개 이슈들의 평균값을 활용한 ‘이슈에 대한 태도’ 변수를 비롯해 다음의 변수들이 포함된다.

- * 나이: 18-20세, 75세 이상 및 5년 단위로 범주화한 13개 범주.
- * 대학졸업: 1=대졸 이상, 0=대졸 미만
- * 가계수입: 가계수입을 28개 수준으로 나눈 ANES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

- * 여성: 1=여성, 0=남성
- * 노동계급: 1=스스로 노동계급이라고 응답한 경우, 0=그 외
- * 러스트벨트: 1=투표 등록지가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미시건, 위스콘신,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주인 경우, 0=그 외 주(뉴욕 주 일부도 러스트벨트에 포함되지만 전체 뉴욕 주와 비교하여 그 범위가 작기 때문에 생략함)
- * 민주주의 만족도: 1=매우 만족함, 5=전혀 만족하지 않음
- * 2008년 이래 미국경제: 1=매우 좋아짐, 5=매우 나빠짐

통제변수들은 이번 대선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고 있는 요인들이다. 보수적 유권자와 공화당 지지자의 트럼프 투표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슈에 있어서도 보수적 입장을 가진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년층 유권자들이 프라이머리 기간 동안 샌더스에 열광했던 만큼 이들이 본선에서 트럼프보다는 클린턴을 더 많이 지지하였을 것으로 예측되며, 대학졸업 변수의 경우는 저학력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음의 값이 예상된다. 비슷한 이유로 정치적 지식이 낮은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더 지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남성, 노동자층, 그리고 러스트벨트에 거주할수록 트럼프를 더 지지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의 당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러스트벨트 지역의 노동자계급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러스트벨트 변수와 노동계급 변수의 상호작용(interaction) 변수도 분석에 포함시킨다. 이 외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족과 오바마 집권기의 미국경제에 대한 불만족이 트럼프를 지지하게 만든 요인이었을 것으로 예상되어 포함되었다. 가계수입은 백인들의 경우는 저소득층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의 경우는 저소득층임에도 클린턴에 대한 지지가 높았기 때문에 그 영향의 방향이나 통계적 유의미성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변수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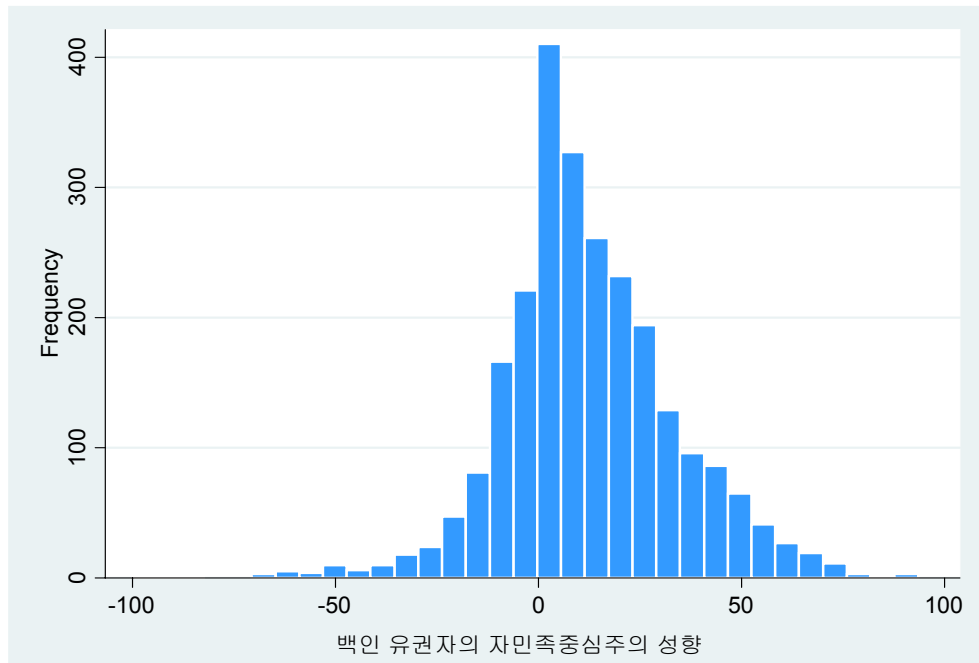
IV. 분석 결과

1. 백인 유권자의 자민족중심주의 성향과 정치적 태도

〈그림 1〉은 2016년 미국 백인 유권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의 분포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0보다 오른쪽에 분포해 있어 내집단에 비해 외집단에 대한 온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인들의 내-외집단의 온도점수 차이(자민족중심주의)의 평균은 12.29점이다.

〈그림 1〉 백인 유권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 성향(내집단 온도 - 외집단 온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된 미국 내 흑인 유권자들과 히스패닉 유권자, 그리고 아시안 유권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적 성향의 평균을 보면 전체 수준에서 백인 유권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적 성향이 다른 인종들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오히려 백인 유권자들이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해 느끼는 온도 차는 다른 인종 집단에 비해 작은 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에서 백인 유권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의 영향과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특히 2016년에 그것이 뚜렷하게 표면화되어 미국 사회의 기본 정신에 대한 훼손이라는 비난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백인 유권자들 중 자민족중심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미국 정치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때문일 것이다.

〈표 1〉 인종별 유권자 집단의 자민족중심주의 성향 분포

유권자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백인	2,505	12.29	21.66	-100	93.57
흑인	314	19.68	21.15	-60.29	85.71
히스패닉	335	16.33	18.58	-34.29	71.71
아시안	109	16.61	16.94	-21.43	73.29

자민족중심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와 정치적 태도 등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알기 위해 정치적 이념 및 정당일체감에 더하여 오랜 동안 미국 정치의 기본적인 논쟁을 제공해 온 5가지 이슈들과 2016년 대선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였던 미국-멕시코 국경 벽 건설 이슈에 대해 자민족중심주의적 성향이 약한 백인 유권자들과 그 성향이 강한 백인 유권자들의 입장을 비교해 보았다.

〈표 2〉는 〈그림 1〉의 분포를 세 등분하여 1/3까지를 약한, 2/3까지를 중간, 그 이후를 강한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으로 구분한 후,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약한 백인들과 그 성향이 강한 백인들의 정치적 정향과 이슈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이 결과는 자민족중심주의적 성향이 약한 백인 유권자들과 그 성향이 강한 백인 유권자들 간에 정치적 정향과 이슈에 대한 태도에서 상당히 크고 일관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민족중심주의적 성향이 강한 백인 유권자들은 이념에 있어서 매우 보수적이며 공화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위한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데 반대하는 편이며, 방위비 지출을 증대하는 데는 찬성한다. 의료보험의 정부주도에는 반대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규제와 일자리를 위한 규제 완화라는 논쟁적 이슈에 대해서는 대체로 중간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예상할 수 있듯이, 정부 재원으로 흑인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는 강하게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멕시코 국경에 벽을 건설하자는 제안에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더불어, 다소 중립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기업규제 및 매우 논쟁적 이슈였던 멕시코 국경 벽 건설 이슈를 제외하고는 자민족중심주의적 성향이 강한 백인 유권자들의 표준 편차가 그 성향이 약한 유권자들에 비해 일관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표준편차의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이러한 일관된 차이는 대체로 자민족중심주의적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이 이 이슈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동질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는 미국 백인 유권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가 백인 유권자들의 보수적 성향, 공화당 지지, 작은 정부에 대한 지지, 그리고 인종주의적, 반이민적 생각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한편,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과 그 성향이 약한 유권자들은 투표 선택에 있어서도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 중 84%가 트럼프를 선택한 반면,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약한 유권자들 중에서는 26.2%만이 트럼프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6년 대선에서 백인 유권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가 매우 중요한 투표 선택요인이었음을 시사한다.

〈표 2〉 자민족중심주의 성향과 정치적 정향 및 태도

정치 정향 및 정치적 이슈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약한 백인 유권자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강한 백인 유권자
정치 이념 (1=강한 자유주의, 7=강한 보수주의)	3.28 (1.51)	5.19 (1.29)
정당일체감 (1=강한 민주당, 7=강한 공화당)	3.17 (1.99)	5.16 (1.93)
공공서비스 정부지출 (1=지출 증대, 7=지출 감소)	3.61 (1.61)	4.95 (1.58)
방위비 지출 (1=지출 감소, 7=지출 증대)	3.94 (1.57)	5.16 (1.41)
의료보험 (1=정부주도, 7=민간주도)	3.37 (2.00)	4.94 (1.92)
흑인 구제 (1=정부가 도와야, 7=흑인 스스로)	3.90 (1.77)	5.58 (1.53)
환경과 일자리 (1=환경보호 위한 기업규제, 7=일자리 위한 규제 완화)	2.53 (1.65)	4.03 (1.84)
멕시코 국경 벽 건설 (1=매우 반대, 7=매우 찬성)	2.57 (2.09)	5.09 (2.14)
트럼프에 투표한 비율	27.2%	84.0%

* 투표 비율을 제외한 각 점수는 7점 척도의 평균값이며, 괄호 안 숫자는 표준편차

2. 자민족중심주의와 투표 선택

그렇다면, 백인 유권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은 다른 다양한 변인들이 투표 선택 요인으로 함께 작용하는 상황에서 후보자 선택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투표 선택을 종속변수로 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한 프로빗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2016년 대선에서 백인 유권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자민족중심주의가 강할수록 백인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선택할 확률이 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민족중심주의는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민족중심주의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계산해 보면, 다른 주요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가운데에서도 자민족중심주의가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가장 약한 백인 유권자가 트럼프에게 투표할 확률은 35.2%에 불과한 데 비해,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가장 강한 유권자가 트럼프에게 투표할 확률은 63.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투표 선택에 대한 프로빗 분석 결과 (1=트럼프 선택, 0=클린턴 선택)

요인	트럼프 선택
백인 유권자의 자민족중심주의	.015(005)***
정치이념	.141 (.085)+
정당일체감	.434 (.053)***
이슈에 대한 태도	.792 (.113)***
나이	-.046 (.026)+
대학졸업	-.380 (.168)*
가계수입	-.012 (.011)
여성	-.285 (.156)+
노동계급	.469 (.273)+
러스트벨트 지역 거주	-.100 (.182)
러스트벨트 지역 x 노동계급	-.775 (.505)
정치적 지식	-.021 (.094)
미국 민주주의 만족도	-.026 (.076)
2008년 이래 미국 경제상황	.318 (.066)***
상수	-5.129 (.572)***
N	1178
Pseudo R-squared	.7812

* p<0.05 ** p<0.01 *** p<0.001 +p<0.1 ;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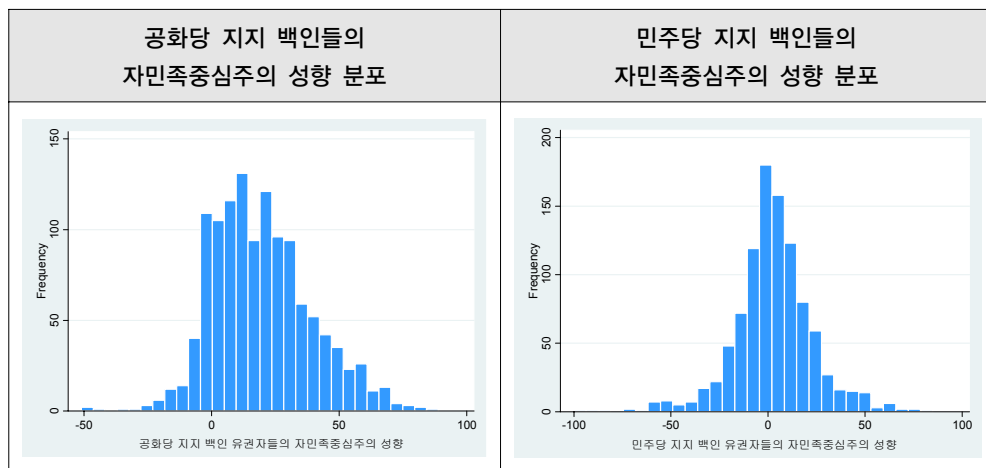
정치이념은 95% 신뢰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90%로 신뢰수준을 확장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이념은 미국

유권자의 주요 투표 선택 요인이지만 2016년에는 불륜 스캔들, 여성비하, 기독교에 대한 불성실, 인종주의적 정책 등 전통적인 보수주의적 가치를 벗어난 트럼프에 대해 보수주의자들 간에도 약간의 균열이 생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보수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선택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강력한 후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균열의 영향은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표 2>에 나타나듯이 적어도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이념의 영향이 과거에 비해 감소되는 데에는 일조하였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정당일체감의 영향은 여전히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는 트럼프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공화당 지지자들은 결국 트럼프에 투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출구조사에 의하면 공화당 지지자 중 약 88%가 트럼프에 투표하였고, 트럼프에 투표한 공화당 지지자들의 51%는 트럼프가 좋아서라기보다는 클린턴이 싫어서 트럼프를 선택하였다고 응답하였다(이소영 2016).

정당일체감은 그 자체로도 트럼프에 대한 투표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상 자민족중심주의적 성향과도 상당히 깊게 연관되어 있다. <표 4>는 공화당 지지 백인 유권자들과 민주당 지지 백인 유권자들의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온도차(자민족중심주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민주당 지지 백인 유권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 성향 분포는 정규분포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공화당을 지지하는 백인 유권자들의 내집단과 외집단의 온도차는 대부분의 유권자에게서 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차이가 50점 이상인 유권자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다.

<표 4> 공화당 지지 백인들과 민주당 지지 백인들의 자민족중심주의 성향 분포



다음으로 유권자들의 이슈에 대한 태도도 트럼프 선택에 매우 크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선거가 흔히 ‘캐릭터 선거’라고 평가되고 있는데(Purdum 2016), 그 평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만큼, 본 연구의 결과는 트럼프 선택에 있어서 이슈에 대한 태도와 경제적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이슈 변수에 포함된 미국-멕시코 간 국경 벽 건설이나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폐기를 외쳐 온 정부주도 의료보험제도, 환경과 일자리 관련 기업 규제 이슈 등은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평가된다. 국경에 벽을 건설하는 문제나 오바마케어로 불리우는 정부주도 의료보험제도 폐기는 트럼프가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캠페인 기간에 크게 부상하였고, 기업 규제 관련 이슈 또한 트럼프가 석탄 산업 노동자들을 동원하고자 지구온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전략을 쓰면서 관심을 끌었던 이슈이다.

더불어, 2016년 대선 후보자 선택에는 2008년 금융 위기 이래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긍·부정적인 평가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8년 이래 미국 경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들은 트럼프를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오바마 정부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한편, 2016년 트럼프에 대한 지지는 기존 정치 시스템과 정치가들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변수를 활용해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는 후보에 대한 지지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대학졸업), 나이, 성별, 노동계급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와 관련해서는 예상했던 대로, 대졸미만의 저학력 유권자,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 유권자, 그리고 노동계급 유권자들이 트럼프에 투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나이와 성별 및 노동계급 변수는 90%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러스트벨트 지역 거주 또는 러스트벨트 지역 거주와 노동계급의 상호작용(interaction) 변수, 그리고 가계수입과 정치 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프로빗 분석 결과는 여러 변수들이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에서도 자문화중심주의가 2016년 미국 대선의 결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전통적인 투표 결정 요인인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정당일체감, 이슈, 또는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등이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자민족중심주의가 또 하나의 중요한 투표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존의 연구들은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모델(사회경제적 요인), 경제투표 모델(경제상황 평가 요인), 심리적 모델(이념, 정당일체감 등 심리적 요인),

합리적선택 모델(이슈 요인) 또는 이 요인들을 통합한 모델 등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투표 모델들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자민족중심주의 요인을 미국 선거의 주요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백인 유권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강한 백인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과 이슈에 대한 태도, 그리고 후보자 선택은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약한 백인 유권자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은 이념적으로 보수적이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며 정치적 이슈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흑인에 대한 정부의 구제 정책이나 미국-멕시코 국경 벽 건설 등 인종주의적, 반이민적 이슈에 있어서는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약한 유권자들과 매우 큰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의 투표 선택에 있어서도 자민족중심주의는 전통적인 투표 선택 요인인 학력, 정당일체감, 이슈에 대한 태도, 경제 상황 평가 등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민족중심주의적 성향이 약한 유권자들과 그 성향이 강한 유권자들의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을 단순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약 57%p에 이르고 있으며, 다른 주요 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프로빗 모델에서도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약한 유권자들과 강한 유권자들의 트럼프 투표 확률은 28%p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기존 연구들은 2008년 대선에서 백인들의 흑인에 대한 자민족중심주의가 오바마 선택을 꺼리게 만든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흑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종주의는 미국 사회에 가장 깊이 내재되어 있는 오래된 사회적 문제인 만큼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강력한 흑인 대선 후보자에 대한 반감과 혐오가 어느 정도는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2012년 대선을 전후로 이민 문제가 미국 정치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2012년 대선에서 백인들의 공화당 후보 롬니와 민주당 후보 오바마에 대한 지지율 차이는 2008년 12%p에서 2012년 20%p로 치솟았다. 백인들의 59%가 롬니에 투표한 반면 39%만이 오바마에 투표하였다. 2016년에도 트럼프에 투표한 백인들은 전체 백인들의 57%, 클린턴에 투표한 백인들은 37%로 20%p 차이로 2012년과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2016년 대선은 2012년보다 훨씬 자민족중심주의의 역할을 커진 선거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백인 유권자들 속에 내재되어 있던 이민과 이민자들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한 트럼프의 캠페인 전략에 큰 책임이 있다. 미국에서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 선거과정 뿐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도 목소리를 크게 내는 등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2000년에 약 360만 명이었던 미국 내 히스패닉 인구는 2015년에는 약 560만 명에 달해 미국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에 약 75%를 차지했던 백인 비율은 2015년에는 61%로 낮아졌다(CPS; Annual Social and Economic Supplement 2016, 이소영 2016에서 재인용). 이러한 상황은 백인들이 불안감과 정체성의 위기를 느끼게 되는 충분한 배경이 될 수 있었다. 특히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일자리들이 계약직이나 임시직 또는 저임금의 직종으로 변하면서 이민자들이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점 또한 백인 노동자층의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했다(이소영 2017). 이민자들을 불안과 분노의 대상으로 그려내는 데 성공한 트럼프 캠페인은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트럼프는 포퓰리즘적 동원에 성공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포퓰리즘은 흔히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정치냉소주의자들을 동원한다(조기숙 2015). 특히 정치적 지식과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정치적 메시지에 의해 자신의 입장을 바꿀 확률이 낮지만 정치적 지식과 이해도가 낮은 사람들은 일단 새로운 정치적 메시지에 노출이 되면 그 메시지가 전하는 프레임에 맞추어 자신의 입장을 변화시킬 확률이 높다(Zaller 1992). 이러한 점에서 트럼프 캠페인이 저학력 유권자들을 타겟으로 캠페인을 전개한 전략 또한 캠페인 전략적 관점에서는 적절한 전략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2016년 대선 유권자 중 대졸 이상 백인 유권자들의 내집단과 외집단의 온도차(자민족중심주의) 평균은 5.9인데 반해 대졸 미만 유권자들의 자민족중심주의 성향 평균은 15.9에 이르고 있다.

1964년 민권법과 1965년 투표권리법을 차례로 통과시키면서 제도적으로 흑백 차별을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흑인에 대한 차별과 적대감이 남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시 부상한 미국에서 이제는 흑인 뿐 아니라 히스패닉, 무슬림, 페미니스트, 성소수자 등 다양한 소수 집단에 대한 배제와 혐오가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향후 미국 정치를 예상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정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이념적 양극화 현상을 보여 왔다. 정치권 뿐 아니라 유권자 수준에까지 뿌리를 내린 양극화 현상은 최근 미국 정치 연구자들의 핵심적인 연구 대상이다. 양극화된 정치는 대부분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찬성 집단과 반대 집단의 극단적인 대결 국면을 불러 왔다. 이념적 양극화에 더하여 자민족중심주의적 경향이 정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미국은 내집단 편향과 외집단 배제를 바탕으로 한 대결의 정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에 투표한 유권자들

중 트럼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좋아해서 선택한 유권자는 42%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클린턴에 대한 반감으로 클린턴을 떨어뜨리기 위해 트럼프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2016년 대선 출구조사).

미국 정치의 정상화는 양극화와 집단중심주의라는 적대와 배제의 정치를 극복하지 않고는 이루어지기 힘들어 보인다.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숫자나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면서 백인 유권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에 따라 자민족중심주의적 성향 또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중심적 대결의 국면을 벗어나 다양한 집단이 공존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현재 미국민들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적 과제에 직면하고서도 여전히 소수 인종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을 자극하는 발언과 정치적 결정을 계속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우려스러운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백인들의 자민족중심주의가 후보자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미국의 자민족중심주의의 정치적 영향과 역할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민족중심주의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보다 핵심적인 문제는 미국민의 어떠한 사회경제적 조건과 정치적 정향이 자민족중심주의적 태도를 강화시키는가 하는 문제와 이 자민족중심주의 태도가 여러 정치적 이슈의 논쟁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통하여 개인적 수준에서나 사회 전반적인 수준에서 자민족중심주의적 성향을 약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구체적인 전략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을 강화시키는 개인적·사회적 요인과 더불어 자민족중심주의가 다양한 논쟁적 이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해 보기로 하겠다.



- 박영환. 2017. 미국 대선 후보들과 미디어. 미국정치연구회 편. 트럼프는 어떻게 미국 대선의 승리자가 되었나: 2016 미국 대선과 아웃사이더 시대, 119-146.
- 이소영. 2016. 2016 미국 대선과 미국사회의 균열. 의정연구 22(3), 39-82.
- _____. 2017. 2016 미국 대선과 사회경제적 이슈. 미국정치연구회 편. 트럼프는 어떻게 미국 대선의 승리자가 되었나: 2016 미국 대선과 아웃사이더 시대, 267-303.
- 정희옥. 2014. 이민 이슈에 대한 여론과 행위자 간 갈등. 이슈를 통해 본 미국정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89-211.
- 조기숙. 2015. 안철수 현상의 동인: 정당불신 혹은 정치냉소주의. 한국정치연구 24(3), 55-86.
- _____. 2017. 트럼프와 샌더스의 포퓰리즘 연구. 미국정치연구회 편. 트럼프는 어떻게 미국 대선의 승리자가 되었나: 2016 미국 대선과 아웃사이더 시대, 49-85.
- Brader, T., N. A. Valentino, and E. Suhay. 2008. What triggers Public Opposition to Immigration? Anxiety, Group Cues, and Immigration Threa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2, 959-978.
- Burns, P. and J. G. Gimpel. 2000. Economic Insecurity, Prejudicial Stereotypes, and Public Opinion in Immigration Policy.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5, 201-225.
- Citrin, J., D. Green, C. Muste and C. Wang. 1997. Public Opinion toward Immigration Reform: The Role of Economic Motivations. Journal of Politics 59, 858-881.
- Coyle, Kelly. 2015. The Media's Coverage of Donald Trump. BallotPedia (Oct. 30).
- Introduction to Culture: Ethnocentrism. 2017.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https://psu.instructure.com/courses/1826457/modules/items/21654085>
- Kalkan, K. O. 2016. What differentiates Trump supporters from other Republicans? Ethnocentrism. Washington Post (February, 28).
- Kam, C. D. and D. R. Kinder. 2012. Ethnocentrism as a Short-Term Force in the 2008 American Presidential Elec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6(2), 326-340.
- Kinder, D. R. and C. D. Kam. 2009. Us Against Them: Ethnocentric Foundations

- of American Opin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and L. M. Sanders. 1990. Mimicking Political Debate with Survey Questions: The Case of White Opinion on Affirmative Action for Blacks. *Social Cognition* 8, 73-103.
 - Kluegel, J. R., and E. R. Smith. 1986. *Beliefs about Inequality: Americans' Views of What Is and What Ought to Be*. Aldine de Gruyter.
 - Lee, Y. and V. Ottati. 2002. Attitudes toward U.S. immigration policy: The roles of ingroup-outgroup bias, economic concern, and obedience to law.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2, 617-634.
 - Ogorzalek, T. K. 2011. Most-racial, not post-racial: Group voting in the 2008 U.S. Presidential election. Working paper.
 - Purdum, Todd S. 2016. The 2016 Race Isn't About Issues. It's About Character. *POLITICO* (August 8).
 - Taylor, D. A. 1962.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rianism and Ethnocentrism in Negro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Negro Education* 31(4), 455-459.
 - Valentino, N. A., T. Brader and A. E. Jardina. 2013. Immigration Opposition Among U. S. Whites: General Ethnocentrism or Media Priming of Attitudes About Latinos? *Political Psychology* 34(2), 149-167.
 - Weisberg, H. F. and C. J. Devine. 2010. Racial Attitude Effects in the 2008 Presidential Election: Examining the Unconventional Factors Shaping Vote Choice in a Most Unconventional Election. *Political Science Faculty Publications* 93.
 - Wier, M, A. S. Orloff, and T. Skocpol, eds. 1988. *The Politics of Soci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Yinger, J. M. 1985. Ethnici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1, 151-180.
 - Zaller, J. R. 1992.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투고일: 2017. 08. 18. ● 심사일: 2017. 08. 18. ● 게재확정일: 2017. 08. 21.
--

Ethnocentrism among the White Voters in the 2016 U. S. Presidential Election

Lee Soyoung (Daegu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white voters' ethnocentrism in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Using ethnocentrism measured by the differences between in-group and out-group in the thermometer scores that white voters gave, the analyses demonstrate significant and sizable differences between voters with weak ethnocentric orientation and those with strong orientation in political attitudes and vote choice. Ethnocentric voters tend to be conservatives and Republican Party supporters, and to have conservative attitudes toward issues pivotal in American politics. Ethnocentrism also appears to play a key role in vote decision even when the major factors of vote choice including socio-economic, economic, psychological factors, and attitudes toward issues are controlled for. Given the expectation that the sizes and the influences of Hispanic voters and other minority groups will multiply, the result of this study implies that how to surmount ethnocentrism causing politics of hostility and exclusion will be the key agenda in the U. S. politics.

〈Key words〉 Ethnocentrism,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White voters, Vote choice, Trump